

지식과 교양

Knowledge and Liberal Arts

창간호(통권 제 1호), 2018년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본 학술지는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

차례

[섹션 1: 지식과 문화]

■ 서 기 자 ■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 세미나 연구 7

■ 정 병 헌 ■

무형 문화재 제도의 의의와 사례 22

[섹션 2: 지식과 교육]

■ 조 용 립 ■

의사소통 공간으로서의 클리닉 현황과 의의 42

■ 원 은 석 ■

u-러닝 시범학교 사례를 통한 문제 제시 및 분석 61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투고 규정 85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심사 규정 96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연구윤리 규정 99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규정 108

Knowledge & Liberal Arts

VOL 1. 2018

liberal Arts Innovation Center,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 ● ●
TABLE OF CONTENTS

[Section 1: Knowledge & Culture]

▮ Seo, Gi Ja ▮

Research on Classcial Seminars As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 7

▮ Jeong, Byung Hun ▮

Significance and Future of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e System
..... 22

[Section 2: Knowledge & Education]

▮ Jo, Young Lim ▮

Status and Significance of Liberal Arts Clinic as a Space for Communicaton
..... 42

▮ Won, Eun Suk ▮

Suggesting Activation of Smart Learning through u-Learning Pilot
School Cases 61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 세미나 연구

서 기 자 (목원대학교)

목차

- I. 들어가며
- II. 각 대학의 고전 세미나 현황
- III. 고전 세미나의 방향과 실제
- IV. 맺으며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사회변화가 가속화 되고 지식 생산이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는 현 시대에 인류문화와 지식의 정수를 담고 있는 고전교육을 통하여 전문 분야에 대한 폭 좁은 지식인 양산이 아닌, 자신의 삶의 궁극적 의미를 깨닫고 논리력, 비판적 사고력, 분석력, 판단력 등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교양 교육의 방향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서양의 고전을 독서하고 지식의 축적으로 역사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지혜의 맥을 짚어내는 교육을 지향하며 학생 스스로 텍스트를 새롭게 해독해 내고 그것을 폭넓은 실존적, 사

회적 맥락과 연결시켜 냄으로써 살아가는 동안 그 정신을 유지하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한다.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의무 등에 대한 교육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전을 통해 현재를 바로 보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의미 있고 행복한 방식으로 자신의 한 생애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할 내적 견고성의 바탕을 기르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고전교육을 통하여 인류가 이룩해 놓은 지혜를 배움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학문 간 벽을 허물고 스스로 지식을 창출하고 응용해야 하는 지식산업 사회에서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 등을 길러주는 기초능력 교육이 필요하고 나아가 종합적 사유를 가능케 하는 학제적 융복합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의 대학교육은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과 예술학을 구분하고, 분리시켜서 학제 간의 지적소통과 교류의 가능성을 차단시켜 왔다. 그 결과 교육 수요자들은 단편적이고 편중된 지식교육을 받았으며, 사물에 대한 총체적 이해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없었다. 그들은 단편적이고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사물, 세계, 문제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교양 교육의 거시적 목표라 할 때, 전통적 학문경계에 배타적으로 격리된 기존 교양 교육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¹⁾ 인접 학문의 영역 간 경계의 해체와 융합을 통해 기초적 창의적 지적능력과 총체적 종합적 사유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매우 급속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학문영역에 기초한 지식과 사유로는 창의적 사유와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융합 교육이

1) 이희용, 「지식융합 교육을 위한 교양 교과목 개발과 기본모델」, 『교양교육연구』, p. 8.

야말로 통섭적 사유를 통해 사물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²⁾

이러한 통섭적 사유능력과 상상력을 지향하는 지식융합 교과목은 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데 결정적인 자질과 소양을 배양할 것이다. 더 나아가 21세기 전문가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사유와 창의적 해석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에서는 21세기 지식융합사회를 주도해 나갈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고전 세미나에 대하여 그 의의를 밝히고 방법과 그 효과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각 대학의 고전 세미나 현황

1. 미국 대학의 경우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최소 두 학기 서구 고전 중심의 토론식 교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카고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는 중핵 교양과정을 통해 고전 읽기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세인트존 대학의 경우에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필수교과로 운영하며 1학년은 그리스 탐구 시기로 호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연구를 한다. 2학년에는 고대와 중세에 생산된 고전들, 3학년에는 17~18세기 고전들을 다룬다. 4학년에는 가장 최근의 고전들, 예를 들면 『전쟁과 평화』, 『파우스트』 같은 고전들을 다룬다. 노터데임 대학의

2) 홍병선, 「융합교육을 통한 기초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양논총』 제4집, p. 141.

경우에는 매 학기 4학점 고전 세미나를 3년간 총 6개 교과를 수강하도록 편성하고 있다. 고전 세미나는 장르 학제에 상관없이 서구 전통 전체를 포괄하는 고전들로 현재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고전들을 다룬다.

대부분 미국의 대학들은 자유교육을 지향하고 고전 읽기를 대학의 존립 근거인 자유교육 지향성과 교육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 대학들의 고전 읽기 프로그램은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신학, 정치이론, 예술, 지성, 문화사를 포함하는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련된 고전을 다루며 학제적 융합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고전 세미나의 운영은 대부분 세미나 형식이며 15~16명의 수강생으로 이루어져 충분한 토론과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다루는 고전의 거의 전부가 서양 정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2. 국내 대학의 경우

국내 대학에서 고전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우선 동국대학교를 들 수 있다. 강좌명은 <고전 세미나A, B>이며, 1학년 교양 필수 3학점 3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전을 엄선하여 개요를 설명하고 고전의 핵심적인 부분만 함께 읽는 방식인데, 고전 선정 방식은 비교적 어렵고 딱딱한 분야의 고전들과 해당 고전들 각각의 주제와 긴밀한 관련을 지닌 쉽고 재미있는 고전들을 짝지어 교재를 편성하였다. 1학기에 12권, 2학기에 6권을 선정하여 교육하며 강의 진행방식은 조별 발표와 토론 형식이고 과제로 독서 감상문을 쓰도록 하며 침삭지도를 한다.

계명대학교의 고전 세미나 강좌명은 <교양 세미나와 글쓰기>이다. 3학점 3 시수로 공통교양 과정으로 운영되며 합리적 사고와 종합적

판단력을 길러 개방적이고 폭넓은 안목과 도덕적 인성을 계발할 수 있는 고전 읽기와 토론,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대학교의 고전 세미나 강좌명은 “가 파트”의 주제로 읽는 고전(대학과 사회, 자유, 성과 사랑)이며, “나 파트”의 세계의 지성(마르크스 읽기, 막스 베버 읽기, 푸코 읽기), “다 파트”의 현대 사회과학 명저의 재발견 1, 2 “라 파트”의 자연과학 명저 읽기로 이루어져 있다. 3학점 3시수로 특화 교양교과목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신입생이 대상이다. 강좌 운영은 주제별 격 학기로 개설되며 강의 진행방식은 교수가 제시한 쟁점과 주제에 대한 고전을 읽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다. 과제는 각 주마다 지정된 고전문헌들을 읽고 쟁점에 대한 글을 쓰며 토론 후 생각을 보완하여 글을 수정한 후 제출하는 것이다.

성균관대학교의 고전 세미나 강좌명은 <인문고전 읽기>로 교양 기초 영역에 속하며 3학점 3시수로 이루어져 있다. 고전 선정 방식은 인문고전 중 정전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 학기 강의 책수는 6권이고, 강의 진행방식은 고전의 내용에 대한 해제, 배경 설명, 비평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고전 관련 영화를 보면서 현대적 해석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을 하기도 한다. 독서 보다 책의 내용을 탐구하고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하며 토론하고 글 쓰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강의, 발표, 전체 토론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과제는 읽은 고전의 내용을 다루는 리포터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강좌명은 <인문학 고전 읽기>로 공통기초 필수 교과이며 2학점 2시수로 편제되어 있는데 인문학 인증제로 전공과 상관없이 인문학 고전 읽기 강좌를 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강좌운영은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탐구하는 능력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세미나형 수업을 지향한다. 고전 선정 방식은 고전 읽기 강좌 카테고리에 있는 교과목은 반드시 고전 도서를 선정

하여 선정된 도서를 읽고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카테고리의 어떤 고전을 선택할 것인지, 몇 종을 선택할 것인지는 교수자에게 자율권을 주고 있다. 강의 책 수는 책의 내용이 방대하고 주제가 다양한 경우 1권을 가지고 1학기를 운영하기도 하고, 3권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강의 진행방식은 조별 발표와 토론 형식이며 과제는 읽은 고전의 내용을 다루는 리포터 작성을 하도록 한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강좌명은 〈인문학과 고전 읽기〉로 1학년 집중 탐구과목으로 3학점 3시수 이다. 1학기에 3학점, 이론 강의와 2학점 토론 수업, 2학기에 3학점 기반 세미나로 운영하며 전공별 세 명의 교수가 팀티칭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통독 보다는 교수가 주제를 제시하고 텍스트 안에서 주제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고전 선정 방식은 담당 교수의 전공 분야와 해당 학기 주제에 맞는 고전을 선정한다. 강의 책 수는 6~7권이지만 통독형식이 아니므로 권수가 큰 의미 없다. 강의 진행방식은 주제에 따른 세미나 형식이다.

위의 대학교들 이외에 덕성여자대학교, 영남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이 교양필수 교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에서도 교양 선택 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으로서의 고전 읽기 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고전 읽기 강좌가 글쓰기나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둘째, 읽기 매뉴얼이 한 학기에 다루기에는 많은 양을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읽기가 불가능하여 얕은 접근으로 고전의 깊은 맛을 보지 못하고 토론의 주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 그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일관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한 채 중요하다 인식만으로 고전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읽기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실제 학생들이 고전을 읽고 그 맛을 즐길 수 있고 이를

체화할 수 있는 체험형 고전 읽기 세미나 교과를 제안한다.

Ⅲ. 고전 세미나의 방향과 실제

1. 고전의 의미와 선정 기준

정전은 본래 고대 그리스어의 갈대를 뜻하는 <kanon>에서 나왔으며, 4세기 무렵에는 성경의 텍스트나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서구의 경우, 고전이란 원래 20세기까지 자유 학예의 중요한 과목으로 가르쳐지던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쓰인 글들을 말했으며, 고전어로 쓰였으면서도 교육의 대상이 될 만큼 우수한 글을 동시에 의미했다.

18세기 이후 고전의 의미가 확대되며 고전을 문학에만 국한키지 않고 보편성과 특수성을 보여주는 모든 작가, 전통과 개성을 가진 작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문학의 일반적 의미로는 일정한 영역의 준거가 되는 텍스트, 또는 규범적, 초시대적 고전으로 간주되는 예술작품을 말하며 시대를 초월한 수용과 미학적 가치가 보장된 작품을 가리키는 말을 일컫는다.

현대작품의 수용에 대하여 논쟁이 많지만 근현대 작가, 심지어 생존 작가의 작품일지라도 지식과 사고의 원천이 되며 보편적 지혜가 담겨 있고, 시대를 꿰뚫는 역사의식과 인생을 통찰하는 지성의 힘이 있다면 고전의 반열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한 공동체의 문화적 특질을 잘 표현하고 그 삶의 표준과 이상을 잘 제시하는 동서양의 고전을 안배하여 독서 대상자들의 수준에 맞는, 살아있는 생명의 정전으로 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정리하면, 정전은 영구히 변하지 않는 절대가치로서의 정전이 아

나라,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고 뜨거운 심장과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가지며, 시대를 초월한 수용과 미학적 가치가 보장된 작품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고전을 선정하는 기준은 위에서 밝힌 문학, 역사,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정전 중 현대작품을 포함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편적 지식의 주입을 극복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간 학문적 교과목의 통합교육 과정으로서의 고전 읽기에 적합한 고전에 기준을 두고 선정한다.

또한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읽기에 도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대학 2학년 학생이 읽고 소화할 수 있는 정전을 기준으로 한다. 나아가 고전이 담고 있는 시대정신과 가치로 현재 삶에 적용하여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고전을 선정하며 교수자의 욕심으로 한 학기에 다루고자 하는 고전을 많이 선정하지 않고, 고전을 감상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2. 고전 세미나의 방향

학습자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책임을 지면서 주체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해 나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 과정을 지향한다. 학생들에게 고전 읽기가 도전적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새로운 의미나 세상을 발견하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교수는 고전의 재미있는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선별하여 가르치지 않고, 얽은 지식을 풀어내기 위해 학생들이 책 읽기에 주력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학습의 결과를 자신의 말이나 그림, 만들기, 몸으로 표현하기 등의 활동으로 발표하여 학습한 내용이 자기화되어 인식

및 표현 행위 전반이 풍성해지는 체험을 하도록 하며 교수 주도적 수업이 아닌, 교수는 길을 안내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학생 주도적 수업을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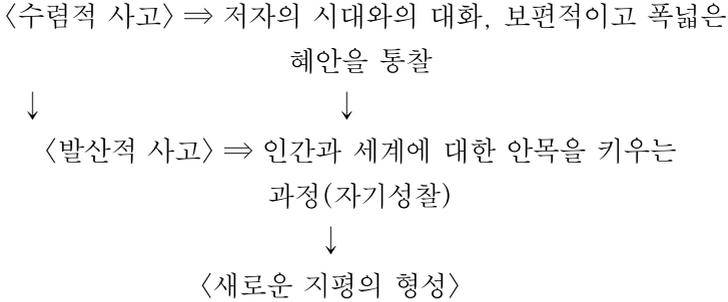
고전교육을 통해 비판적이고 창의적이며 총체적 인식능력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교유하여 책을 읽는 과정에서 삶의 과정을 체험하여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교육한다. 2학년 필수교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1학년 때 어느 정도 훈련된 학생들이 교수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읽으며 읽는 재미를 알아가도록 한다. 1학기에는 4권, 2학기 2권 통독을 목표로 고전 읽기를 통하여 창의력·비판력을 높이고, 통섭적 사고, 인성함양을 하도록 한다.

책 읽는 일 이외의 어떤 과제도 내지 않음으로써 책 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관에 별도의 서고를 마련하여 고전 읽기 공간으로 만들어 책을 비치하고 언제라도 편하게 책을 빌리고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교수는 주제 및 생각거리를 미리 공지하여 독서를 독려하며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독서 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은 독서 노트를 마련하여 강의 전에 작성해 오도록 하며 들어갈 내용은 읽은 날짜, 작가, 출판사, 출판년도, 읽으면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 소감 등을 적어 수업시간에 토의 시 활용하도록 한다.

철학자 헤겔(Hegel)은 소박한 의식의 상태에서 고양된 완전한 의식으로 나가는 것을 “도야(Bildung)”라 했다. 고전 읽기는 인격도야의 가장 유효한 방법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체험에 기반을 둔 자기 주도적 고전 읽기 프로그램>에 대한 것으로서, 학생들이 고전 체험을 통한 창의력·비판력 함양, 통섭적 사고, 대인관계 향상, 심미성·도덕성 함양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여 사회 안에서 진정한 자기실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Bildung”의 교육 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각 단계를 구체적 실현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새로운 과제 또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답을 도출해내고 그 경험 후 자기 성찰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독서한 내용을 추상적으로 사고하기보다 직접 행하고 느끼면서 학습하는 것으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함께 작업을 수행해 내며 단편적, 일방적 지식이 아닌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방법으로 스스로 고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결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게 되며 수렴적 사고에서 발산적 사고로 이행하여 책의 내용을 체화하여 새로운 지평을 형성하게 된다.

IV. 맺으며

이상에서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 세미나와 그 필요성을 알아보고, 각 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

에 운영되고 있는 고전 세미나와 다른 방향에서 체험형 고전 세미나의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면서 잊고 있거나 아니면 모른 채 덮어 두고 실천하지 못하는 덕목은 사람됨과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전 세미나라는 교과를 예로 제시하였다.

이 교과목의 목표는 고전 세미나를 통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아탐구의 계기를 갖고, 인간의 품성, 참가치, 공동체를 위한 책임의식,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독서교육 방법은 학생들이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거쳐 주제에 접근하여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새로운 지평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교과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독서에 대하여 흥미를 갖을 것이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고, 사고의 폭이 확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독서교육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책 읽기에 대한 부담일 수 있어서 학생들이 흥미롭게 책을 읽고 독서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해내는 것이 과제로 남을 수 있다.

더욱이 이 교과목은 정원을 30명 이내로 할 때에 학습 효과가 지대할 수 있어서 이 또한 대학 교양수업에서 이루어내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대학 교양수업에서 고전 세미나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새로운 독서 읽기의 장으로 이끌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동철, 「교양교육의 활성화와 고전읽기 프로그램」, 『학생생활연구』, 1998
- 이하준,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 제8권 제5호, 2014
- 정인모, 「교양교육과 고전읽기」, 『교양교육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7
- 허남영, 정인모, 「고전읽기와 토론 강좌에서의 읽기 모형 개선 방향」, 『교양교육연구』 제 6호, 2014
- 이황직, 「고전읽기를 통한 교양교육의 혁신: 숙명여대의 ‘인문학 독서토론’ 강좌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 26집』, 2011
- 염은열, 「고전문학 학습의 경험과 재미의 문제에 대한 논의」, 『고전문학과 교육』 제 28권, 2014
- 조미숙, 「인문학 융복합 교과개발 -고전의 이해와 적용」, 『동남어문집』, 제 37집, 2014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세미나와 그 필요성을 알아보고, 각 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고전 세미나가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위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책들을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찾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독서 자체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체험형 고전 세미나 교육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교과의 목표는 고전 세미나를 통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아 탐구의 계기를 갖고, 인간의 품성,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독서 교육 방법은 학생들이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거쳐 주제에 접근하여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새로운 지평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교과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독서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될 것이며, 사고의 폭이 확대되고 자아탐구로 내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교과는 정원이 30명 이내일 때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방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대학 교양 수업에서 고전 세미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새로운 독서 읽기의 장으로 이끌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고전 세미나, 인문교육, 교양 교육, 발산적 사고, 사고 지평 확대, 성장과 발전

■ Abstract

Research on Classical Seminars As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Seo, Gi Ja

In this study, the necessity of classical seminars as lib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y was investigated, and the curriculum which is practiced by each university was examined. And the problem that the existing classical seminars were operated by selecting so-called classics without considering students' reading ability was found.

Therefore, in this study, a specific method for experiential classical seminar education in which students could have an interest in reading itself was presented. The goal of this curriculum is to help each student to develop individual self-exploration opportunities, and to cultivate human character, understanding of others, and social awareness. The reading education method for this is to enable students to approach topics through convergent and divergent thinking, interact with other learners, and discover new horizon.

Through this curriculum learning, students will have an interest in reading, expand the scope of their thinking, and be able to expect internal growth with self-exploration. However, the problem with this curriculum is that when the number of students is 30 or less, the effect of the method proposed by this study can be expected.

Nevertheless,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udy could be of little

help to researchers who want to lead students to a new field of reading through classical seminar education in university liberal arts classes.

Keyword ● Classical Seminar, Humanities Education, Liberal Arts Education, Expansion of Thinking Horizons

■ 논문투고일 : 2018.04.04. ■ 심사완료일 : 2018.05.10 ■ 게재확정일 : 2018.05.15



무형문화재 제도의 의의와 미래

정병헌(숙명여대)

목차
Ⅰ. 머리말
Ⅱ. 무형문화재 제도의 시행과 의의
Ⅲ. 무형문화재제도의 보완 방안
Ⅳ. 마무리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을 나타내는 핵심어로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 사회를 들고 있다. 전자(前者)는 산업혁명의 결과가 개개인의 생활 전반에 침투해 혼미(昏迷)의 삶을 헤쳐 나갈 예지(叡智)가 요구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후자(後者)는 단일민족(單一民族)의 환상을 벗어나 전혀 이질적인 ‘새 한국인’³⁾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3)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한국 국민으로 편입된 한국인을 기존의 한국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새한국인’으로 부른다. 그러나 이 또한 기존의 한국인과의 구별이라는 이유에서 적절한 명명(命名)은 아니다. 이러한 구분이 없어졌을 때 두 집단 간의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이지만, 그 도래(到來)는 대단히 요원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

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를 전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의 그 자리’를 성찰하는 전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미래 한국을 꿈꾸는 것으로 발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끊임없는 외침에 시달렸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먼저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강대국으로서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의 지배 세력을 제외하고는 빠져진 가난 속에서 굶주려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욕구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평평거리면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미래 한국의 모습을 우리는 누구나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 속의 한 나라로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존재 의의를 충분히 발휘한다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강대국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이다. 주변 국가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약탈을 통하여 강대국을 꿈꿨던 일제(日帝)와 맞섰던 인물,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던 백범 김구(金九)야말로 미래의 한국을 외세의 침략과 관계없는 강대국이 되는 것으로 꿈꾸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구가 생각한 미래의 한국은 군사대국이나 경제대국이 아니라 문화대국이었다. 김구는 악랄한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강대국이 되어 이를 되갚아주고자 하는 소인배(小人輩)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

병헌, 「다문화시대의 국어국문학과 소통전략」, 『국어국문학』176, 국어국문학회, 2016, 5-21쪽.

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文化)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⁴⁾

물론 김구가 말한 문화는 자연과학과 대칭되는 정신문화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에 기반한 문화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논의에 유익한 시사(示唆)를 주고 있다.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확보되는 여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고, 2018년 현재 약 230만 명에 육박하는 ‘새 한국인’들의 지속적인 증가는 기존의 한국인들과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김구가 군사나 경제보다 문화강국을 내세운 것은 미래에 대한 투철한 안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를 가진 나라는 분명히 다른 나라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비칠 것이다. 따라서 문화대국은 매력적인 나라로 바꾸어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매력(魅力)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으로 정의된다. 사람도 그렇지 않은가. 대단한 권력이나 재력을 갖지 않았어도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그런 매력은 일상적인 사람들의 평균적인 모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평균적인 모습 외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모습을 덧붙여 가지고 있을 때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매력의 고전적인 정의를 프랑시스 갈통(Francis Galton)은 친숙한 모습의 표준성(typicality)에,

4) 김구(도진순 역), 『백범일지』, 돌베개, 2005.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identity)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지나치게 특수한 모습은 자칫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평범한 모습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어렵기 때문이다.⁵⁾

한국이 미래의 매력 있는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다른 나라나 역사에서 그런 모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지난 세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와 군사 등 하드웨어적인 면에 국력을 기울였고, 그것은 대부분 인간의 소소한 삶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매력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것은 백범 김구가 언급한 대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침략과 복종이라는 힘의 논리 속에서는 삶의 여유와 매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라는 측면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을 때, 미래의 매력을 위한 문화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의 방식인 문화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문화는 우리 선인들이 물려준 유산으로서의 문화와 근대 이후 서양을 통하여 유입된 외래문화가 다분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라져 가고 있는 전통문화가 우리에게 고유한 것이라 하여 그대로 묵수(墨守)할 이유도 없고 더구나 외래문화라고 하여 우리의 것과는 이질적인 것을 내세워 무조건 배척할 것은 아니다.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상황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외래문화라고는 하지만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그 흐름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기호에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일차적으로 우리는 우리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외래문화가 서양 강대국의 시각을 그대로 옮긴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언급해야 할

5) 민병원, 『문화 유전자와 확산 네트워크, 매력적인 국가 만들기』, 21세기 평화재단·평화연구소, 2005, 164쪽.

것이다. 그들의 시각을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전통문화와 약소국에 적용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각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 군사논리를 앞세운 서양의 문화를 주체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양의 문화를 그대로 이식(移植)한 모조품이라는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매력적인 것의 실상도 다분히 서구적인 시각에 기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因子)는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표준성인데, 그것은 서양의 그것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향유되고 있는 문화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외래문화를 잣대로 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는’ 대상은 항상 객체이고, 자신의 속성을 드러낼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을 자(尺)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양문화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원형(原型)’이나 ‘심층(深層)’ 등으로 말하면서 사라진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문화는 항상 서양을 종주국으로 삼아 그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항상 성지 순례를 위하여 그쪽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쪽이 변하면 그에 따라 이곳도 변해야 제대로 시대의 변화에 편승(便乘)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김만중(金萬重)이 한시(漢詩)문화를 ‘앵무새의 사람 흉내’라고 일갈(一喝)한 것과 대동소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사신(使臣)이 왔을 때, 그를 맞상대할 접반사(接伴使)는 항상 중국 사신의 평가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측에서 본다면 접반사가 아무리 우리나라 최상위 엘리트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토인 중국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 사신과 대등한 상황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는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매력 있는 우리 문화란 그들이 대등한 문화라고, 독특한 한국
의 것을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인식할 때에만 가능하다. 전통문화의 소
중함과 그 보존 전승의 심각성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깨닫고 실시한 제도가 인간문화재제도(人間文化財制度)라고 할
수 있다. 없었던 시절, 그나마 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많은 예인(藝人)들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문화를 보존하고 교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 함께 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나타난 부작용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 부작용은 본래의 제도 실시 취지를 어그
러뜨릴 만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서 우
리의 문화의 보존과 교육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II. 무형문화재 제도의 시행과 의의

정부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 유산 중 현대문명
의 영향으로 소멸되거나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선별하여 이를 보호
하고 원형적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을 강구하였다. 그 하나로 일제가 제정한 조선고적천연기념물보호령을
1961년 12월 폐지하고, 새로 문화재보호법을 지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한 중요무형문화재기능예능보유자 인정 제도를 들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인간문화재라 불리는 이 제도를 통하여 정부는 전통의 계승과 재창
조를 위한 발판으로서 보존의 분명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1964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
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인멸(湮滅)되는 전통문화의 한 측면이
존속할 수 있게 되었다. 엄혹(嚴酷)했던 일제의 식민지 기간을 보냈고,
이를 극복할 여유도 없이 닥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은 우리나라
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였다. 이런 어려웠던

시절에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범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그 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인물을 보유자로 지정하여 국가가 지원하였던 것이다.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식민지 체험을 아프게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조각난 토막들로만 구성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는 그나마 기적(奇蹟)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때는 국가나 국민이 당장의 살림살이 걱정으로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1962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120달러였으니, 그 당시 치러지는 선거마다 단골처럼 나타났던 구호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던 것이다.

또한 근대화에 앞장섰다고 하는 서구(西歐)를 향하여 가지는 한없는 콤플렉스 때문에 모든 국력을 그것의 수입과 정착에 기울였던 것이 큰 흐름이었다. 예술은 서구의 것이라야 예술로서의 접근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것은 결방살이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석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음악의 보통명사는 서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은 국악(國樂)이라는 이름으로 자그마한 구석방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천재를 모방하겠다는 욕심으로 모차르트가 태교음악의 기본이 되니, 우리의 아이들은 배속부터 서구의 울동을 체득하면서 태어났다. 그리고 제도권의 음악은 우리의 것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고, 그 비싼 피아노를 작은 집에 모시고 살기도 하였다. 우리의 전통적인 문학도 소리 소문 없이 서구의 것으로 대치되었고, 그런 흔적은 지금의 모습에 아픈 상처처럼 남아 있다. 우리의 시(詩)는 우리의 율격(律格)을 잃어버렸고, 서구 시의 번역체가 시의 모범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극도의 궁핍 속에서도 전통문화를 찾아 보존하고 전승시키고자 하는 제도의 마련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정책일 수 있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당시의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① 민족 생활의 변천과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 ② 발생연대가 비교적 오래고 그 시대의 특색을 지닌 것
- ③ 형식과 기법이 정통적인 것
- ④ 예술상 가치가 특출한 것
- ⑤ 학술 연구 상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 ⑥ 향토적으로나 그 밖의 특색이 현저한 것
- ⑦ 인멸될 우려가 많아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기 쉬운 것

이로 볼 때 당시의 정책 입안자들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제도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무형문화재의 기준으로 제시한 일곱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제시한 ‘인멸될 우려가 많아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기 쉬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박물관에 진열된 유형의 문화재처럼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후대에도 그 존재나마 남기려는 의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유자와 전수자를 두어 보유자가 가진 능력을 변형 없이 전수자에게 전달하게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1964년 지정된 국가 무형문화재는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남사당놀이, 갓일, 판소리,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의 일곱 가지였다. 1966년에는 강강술래, 은산별신제, 나전장, 진주·삼천포농악이 지정되어 모두 11가지로 늘어났다. 1967년에 지정된 것은 진주검무, 강릉단오제, 한산모시짜기, 북청사자놀음, 거문고산조, 봉산탈춤, 동래야류이다. 이후 계속 추가되어 현재는 133 종목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번호의 부여는 연구나 발굴의 상황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진주삼천포농악은 1966년 11호로 지정되었는데, 이후 평택농악(1985), 이리농악(1985), 강릉농악

(1985), 암실필봉농악(1988), 구례진수농악(2010)이 추가됨에 따라 11-1호로 수정되었던 것이다. 이후의 것은 11-2호, 11-3호 등을 부여 받아, 앞으로도 새로운 지역 농악이 무형문화재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또한 1986년 전통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문배주, 면천두견주, 경주교동법주도 이러한 예를 따라 86-1호, 86-2호, 86-3호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가면극이나 민요, 산조 등은 이러한 전례를 따르지 않고 각각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양주별산대놀이는 1964년 무형문화재로 2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후 통영오광대(1964), 고성오광대(1964), 북청사자놀이(1967), 봉산탈춤(1967), 동래야류(1967), 강령탈춤(1970), 수영야류(1971), 송파산대놀이(1973), 은율탈춤(1978), 하회별신굿탈놀이(1980), 가산오광대(1980) 등이 계속 지정되었지만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던 것이다. 민요와 산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2015년 새롭게 제정되어 앞의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하게 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전통공예 장인들이 재능과 기량의 우위에 따라 공평하게 예우 받고 미래지향적 바탕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그동안 전승되어져 온 종목(공예)을 완벽하게 제작하여 수익창출 및 올바른 전승, 전수 활동을 통하여 장인의 삶에 윤택함을 보장받고 이를 바르게 전승하며 수제자들에게 전수하는데 있어 전혀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그 보전이나 진흥을 위한 원칙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서 ‘인멸의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을 원형의 상태로 보존하고 전승하고자 한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었다. 이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 2016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27600 달러에 이르게 되어,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대한 인식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Ⅲ. 무형문화재제도의 보완 방안

1962년 제정된 문화재법은 당시로서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일이다. 2015년 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전에 시행되고 있는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였다고는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의 제시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문화적으로 갖추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看過)했다는 점이다. 매력적인 국가, 또는 문화강국은 독자성(獨自性)을 바탕으로 한 보편성(普遍性)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질 없이 외부의 것만으로 치장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는 문화의 구걸(求乞)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한다면 단기적(短期的)으로는 편리하겠지만, 항상 그것을 부여한 본부(本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를 방기(放棄)하거나 일실(逸失)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인간문화재를 지정하고 전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법이 그 나름의 중요한 성과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 또한 상당한 정도 드러났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판소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은 국가무형문화재 제 5호를 ‘판소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1964년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에는 ‘판소리 춘향가’로 불렸다. 그래서 당시 지정된 인간문화재는 ‘이도령 광한루 나가는 데’의 김연수, ‘적성의 아침날’의 김소희, ‘신연맞이’의 김여란, ‘기생 점고’의 박녹주, ‘방자 편지 가져가는 데’의 정광수, ‘박석고개’의 박초월로 모두 6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판소리 춘향가로 명칭을 붙인 것은 그 이후 판소리 심청가, 판소리 흥보가, 판소리 수궁가, 판소리 적벽가로 전개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소리를 모아 교합본 춘향가를 만들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가면극에 서로 다른 번호를 부여한 것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후속 조치 없이 판소리 인간문화재의 지정은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1970년 정광수와 박초월을 수궁가 보유자, 박녹주를 흥보가 보유자, 정권진을 심청가 보유자로 지정하고, 1973년에는 박동진과 박봉술을 적벽가 보유자로 지정하면서 일견 외면적인 정리는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1976년에는 적벽가 보유자에 한승호를 추가하였고, 1988년에는 강도근을 흥보가 보유자에 추가하였다. 이는 명창의 더듬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식을 벗어나 판소리 각 작품에 장처(長處)를 보이는 명창을 배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부분창으로 이루어지는 더듬 중심에서 박동진에 의하여 촉발된 판소리 완창으로 공연 방식이 변화된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1974년에는 개별 작품으로 지정된 것을 ‘판소리’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부르게 된다. 1978년 중요무형문화재 59호로 지정되었던 판소리 고법도 1991년 판소리에 귀속시키면서 59라는 일련번호는 그 내용 없이 번호만 남게 되었다.

판소리의 전승은 춘향가나 심청가와 같은 레퍼토리로 이루어지지 않고, 스승과 제자의 도제식 교육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964년 ‘판소리 춘향가’로 지정하여 그 이후 각 작품에 다양한 유파의 명창을 배분하는 방식은 그나마 이러한 유파의 특성을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작품, 그리고 판소리 고법까지도 판소리라는 명칭 속에 소속시키면서 이러한 다양성과 독자성은 전혀 도외시되었다. 그 결과 각 유파나 ‘제’가 가지고 있는 독자성이 무시된 채 침대에 몸을 맞추어 자르는 식으로 판소리의 획일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2018년 5월 현재 판소리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은 송순섭, 김청만, 신영희, 정철호, 남해성으로 모두 5명이다. 여기에서 김청만과 정철호는 고법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판소리 인간문화재는 3명인 셈이다. 송순섭은 박봉술제 적벽가로 인간문화재가 되었고, 신영희는 만정제 춘향가의 인간문화재이다. 그리고 남해성은 미산제 수궁가의 인간문화재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이미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춘향가>와 <수궁가>, <적벽가>를 제외한 <심청가>와 <홍보가>의 명창을 선정하여 지정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본 것과 같이 판소리의 전승은 작품이 아니라 각 유파나 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각 작품의 보유자로 다양한 유파와 제를 전승할 수 있는 명창을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초기에 이루어진 복수 지정의 의사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또한 송순섭은 <적벽가>만이 아니라 박봉술의 <홍보가>와 <춘향가>를 전수받았고, 신영희가 전승하고 있는 만정제는 김소희가 여러 창본의 <춘향가>에서 이면에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합하여 짜놓은 것이다. 남해성은 박초월의 <춘향가>와 <수궁가>를 이수하였지만 강도근과 김소희의 문하에서 소리 세계의 폭을 넓혔다. 따라서 한 보유자라 하더라도 유파나 제를 대표한다면 여러 작품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어야 가 유파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자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승체계에서 전승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 목록은 그 설 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무형문화제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만든 제도

가 오히려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 활동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 하데 된 것이다.

관소리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이는 대부분의 무형문화재 일반에 통용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농악은 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이리 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진수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외의 지역에 산재한 농악의 독자성은 전승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굿도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농촌 공동화(空洞化)와 산업화에 따라 본래의 모습을 잃거나 사라지고 말았다. 모든 해결책을 제도를 통하여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일이다.

다른 시각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전체 인구나 대학 인구에 비례해 볼 때 연극이나 대중문화를 위하여 개설된 학과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만으로도 모자라 러시아로 뉴욕으로 가는 행렬이 줄을 짓고 있다. 앞으로의 영상 시대에 그 인구는 더 필요할 것이라고 할지 모른다. 실제로 수많은 방송국과 극단이 설립되면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인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양성된 인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중문화는 그런 방식으로 휩쓸려 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양성된 인력이 대중 매체를 장악한 결과 전통예술의 설 자리는 상대적으로 미약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다른 방향으로 인력이 양성되었다면 우리의 대중문화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언젠가 인도(印度)에서 온 교역자(教役者)들이 인도의 기독교 현실을 알려주는 행사에 참가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찬송가는 우리의 것과 같이 서양의 것을 번역한 것이 아니었다. 인도도 우리처럼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음악 문법으로 새로운 찬송가를 제작하고 예배를 보는 것이었다. 우리 처럼 서양 음악이 음악의 전체인 것처럼 가르치는 곳은 특수한 몇 개의 사립학교일 뿐, 모든 공립학교는 그들 자신의 음악이 음악의 전체라는 것이다. 서양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우리가 국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처럼 적다고 하였다.

이것이 인도 대부분의 현상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서양의 찬송가를 그대로 따라 부르고 있는 것이 참 부럽다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를 씩씩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종교의 토착화를 방해하여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나설 수 없게 하는 장애(障碍)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우리의 이 현상을 참 부끄러워하는데도 그들이 우리의 현상을 부럽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하였다. 더구나 그들의 부러움을 참 자랑스럽게 받아들여 우리의 행운이라고 해설하는 이곳 교역자의 말은 세계화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였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전통예술을 전승하는 공교육제도의 확립은 더욱 시급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 필요성을 성찰하고 널리 확산(擴散)하는 작업이야말로 이 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IV. 마무리

국운이 쇠퇴하던 시기에 판소리를 비롯한 우리의 전통문화는 밀려오는 외래문화 앞에서 한 번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철저한 침묵과 굴복을 강요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러하다. 외래문화의 수용은 자체 내의 역량이 축적되었을 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래문화는 무비판적인 상륙을 달성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대응(對應)과 발전(發展)이라는 조화

를 추구하지 못하고 철저한 양자택일(兩者擇一)의 논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예정된 만큼 자명하다. 전통예술은 전(前) 시대인들이 사용한 옷이나 그릇처럼 박물관에 보관되어 옛사람들의 원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하여 우리의 과거를 한없이 왜소(矮小)하게 만드는 데 일조(一助)하고 있다. 이것이 예술적 측면에서 거론되어야 하는 식민지적 상황의 피해이고, 따라서 그 단절의 벽을 어떻게 허무는가에 우리의 사명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시대에 대한 반성과 자리매김이 식민지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늦게나마 조선적 상황과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냉철한 성찰을 요하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의 가중(加重)은 식민지적 상황을 거쳤던 모두에게 부과되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현대화의 영향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을 통하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다. 전통문화를 화석화한 골동품으로, 그리하여 자생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이러한 인식은 전통문화의 변질을 막고, 그 원형의 모습을 후세에게 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는 박물관의 진열장에 놓인 골동품이 아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면 거기에서 꺼내어 갈고 닦아 이 시대에도 효용성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엘리어트는 “전통이 앞선 세대가 남긴 성과를 맹목적으로 혹은 소심하게 고수하고, 전 세대의 성공을 추종하는 데 있다면 그런 전통은 적극적으로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와 같이 전통은 그 자체로서 이 시대에 계승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엘리어트는 전통의 계승을 위하여 뚜렷한 역사의식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무형문화재제도를 통하여 보존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살아있는 전통문화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가치를 발하는 과거야말로 전통에 값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전통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다. 현재를 영위하는 문화 종사자들의 의식이 전통의 창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때문이다. 전통을 바탕으로 한 문화의 창조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유산의 원형적 보존과 창조적 계승, 그리고 그에 대한 심층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방향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그 문화가 외래적인 것에 종속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다른 문화의 세례를 받은 한 문화가 다시 본래의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엄청난 충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 영향은 두고두고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체험을 통하여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구(도진순 역), 『백범일지』, 돌베개, 2005.
- 김익두, 『관소리, 그 지고의 신체 전략』, 평민사, 2003. 10, 335p.
- 신옥근, 「케백의 전환문화주의와 국문학의 정립문제」, 『프랑스학연구』 60, 프랑스학회, 2012.
- 신현중, 「세계화의 본질과 특징」, 『산경연구』 6, 영남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8.
- 윤인진,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 2, 한국사회학회, 2008.
- 임돈희 · 로저 L. 자넬 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 유산제도와 그 의미」, 『비교민속학』 26, 비교민속학회, 2004.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1999.
- 전영준, 「한국의 다문화연구 현황」, 『다문화의 이해』, 도서출판 경진, 2009.
- 정병현, 「다문화시대의 국어국문학과 소통전략」, 『국어국문학』 176, 국어국문학회, 2016.

■ 국문초록

매력 있는 우리 문화란 세계와 대등한 문화, 독특한 한국의 것을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인식할 때에만 가능하다.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그 보존 전승의 심각성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깨닫고 실시한 제도가 인간문화재제도(人間文化財制度)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과 함께 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나타난 부작용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 부작용은 본래의 제도 실시 취지를 어그러뜨릴 만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의는 그런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서 우리의 문화의 보존과 교육을 생각해 보았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현대화의 영향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을 통하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다. 전통문화를 화석화한 골동품으로, 그리하여 자생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이러한 인식은 전통문화의 변질을 막고, 그 원형의 모습을 후세에게 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는 박물관의 진열장에 놓인 골동품이 아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면 거기에서 꺼내어 갖고 닦아 이 시대에도 효용성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판소리의 경우 다양한 유파와 제를 인정하여 복수로 지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전통예술을 전승하는 공교육제도의 확립은 더욱 시급한 일이다. 그 필요성을 성찰하고 널리 확산(擴散)하는 작업이야말로 이 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무형문화재 제도, 문화, 판소리, 교육, 전통, 유파

■ Abstract

Significance and Future of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System

Jeong, Byung-heon

Our attractive culture is possible only when we recognize that it is a culture that is comparable to the world and that has a unique Korean.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culture and the seriousness of its preservation tradition can be found here. And the system implemented after realizing this can be said to be the human cultural property system. However, along with the positive aspects, the side effects of this system were innumerable. The side effects are serious enough to distort the purpose of the original system. With this in mind, this discussion considered preservation and education of our culture.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system is a system guaranteed by law through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in order to preserve and transmit the traditional culture that is disappearing under the influence of modernization. This perception of traditional culture as fossilized antiques and thus loss of self-sufficiency prevents the deteriorat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can be expected to have the effect of conveying its original form to posterity. However, traditional culture is not an antique placed on the showcase of a museum. If so, then you have to take it out, grind it, and show its utility in this era.

In the case of Pansori, there is a need for a method of recognizing

various schools and festivals and designating them as plural. It is more urgent to establish a public education system that transmits traditional art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think about the necessity of the culture and the future of the country to reflect on its necessity and spread it widely.

Keyword ●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system, culture, pansori, tradition

■ 논문투고일 : 2018.04.20. ■ 심사완료일 : 2018.05.11 ■ 게재확정일 : 2018.05.16



의사소통 공간으로서의 클리닉 현황과 의의

조 용 립 (목원대학교)

목차
I. 서론
II. 클리닉의 운영 현황과 의의
III. 의사소통 공간으로써의 제언
IV. 결론

I. 서론

대학생들은 교양과 전공 지식을 극대화하여 사회에 진출하고자 모든 능력을 쏟고 있다. 능력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대학은 무엇을 제공하고 있을까? 대학에서는 심화된 전공 교육과 다양한 교양 교육으로 그들의 노력에 답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길잡이로 교양 교육의 강화를 외치고 있다.¹⁾ 그 이유는 사회적으

1) 그 예가 글쓰기, 말하기, 토론, 발표 등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양 필수 과목의 강화이다.

로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가 의사소통 능력이기 때문에, 대학 관계자와 학생들은 글쓰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²⁾

현재 목원대학교에서는 글쓰기·말하기 관련 <토론과 글쓰기>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양 필수로 1년 두 학기에 각 2학점씩 개설되어 있으며, 수강 인원은 30명 내외이다. 이 교육과정은 토론(말하기)과 글쓰기가 통합된 수업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말하기에는 자기소개, 정보전달, 설득, 면접, PT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대학 교양 수업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진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 토론식 수업의 도입이다. 따라서 토론은 말하기의 종합적 운영이며, 이러한 방식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다만 글쓰기에 할애된 시간이 부족하여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글 작성 - 첨삭 - 수정’의 과정이 어려우며, 이 과정은 담당 교수가 과제물, 상담 시간 등을 활용하여 글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부족한 시수의 수업에서 필요한 것이 비교과로 마련된 기초교양 클리닉이다.³⁾ 말하기와 글쓰기는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많은 대학에서는 체계적 교양 교육을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금까지 ‘~ 클리닉’, ‘~ 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기초교양 클리닉을 목원대학교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클리닉의 운영 현황과 의의

2) 이곳에서는 글쓰기, 말하기, 토론, 발표 등을 통칭해서 교양국어라 한다.

3) 목원대학교 기초교양 클리닉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내에 소속되어 <토론과 글쓰기> 교양 필수 수업과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1. 운영 현황



[그림 1] 글쓰기 클리닉 개소(2014.4.22.)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글쓰기 클리닉은 2014년 4월 22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첫 해 294건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매학기 500여 건 이상 글쓰기 첨삭을 진행하고 있다. 글쓰기 클리닉은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대학 생활에서 많은 쓰는 학술적 글쓰기부터 취업을 위한 실용적 글쓰기를 개인지도 받을 수 있다.



[그림 2] 말하기 클리닉 개소(2015.10.6.)

말하기 클리닉은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초의사소통역량을 높이기 위해 구축되었다. 2015년 개소하여 2017년까지 매 학기 300여 건의 말하기 코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 재학생을 위한 말하기 코칭 기관은 다른 대학보다 앞서 설치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취업 면접, 대인관계 개선, 정보전달 말하기, 설득하는 말하기, 공감을 위한 말하기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말하기 훈련을 할 수 있다.

2. 운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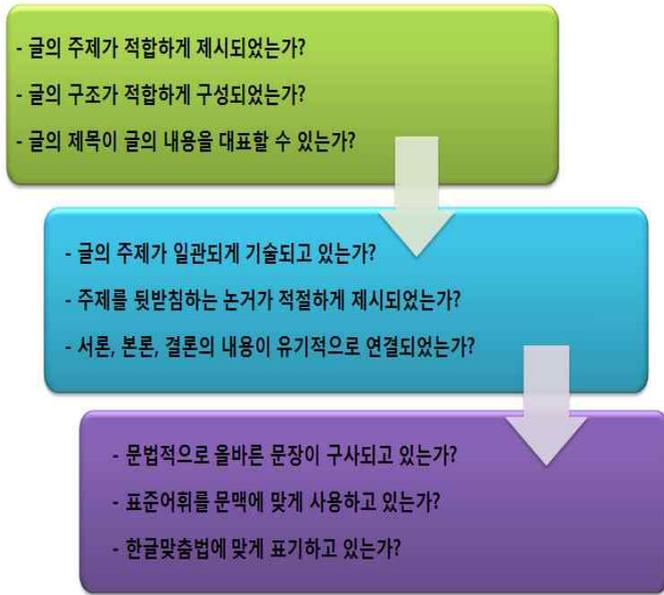
기초교양 클리닉에서는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침삭지도를 제공하고자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1) 글쓰기 클리닉 운영 특징

글쓰기 클리닉은 상설 기관으로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상주하는 침삭지도 전문요원이 지도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체계적 침삭 실시한다. 또한 매학기 기존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매뉴얼 개정 및 시스템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화된 침삭 매뉴얼로 양질의 침삭 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단계 침삭프로그램〉



[그림 3] 채식 프로그램 세부 매뉴얼 - FCW

위와 같은 채식 매뉴얼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장르별 채식 프로그램 운영: 실용적인 글, 문학적인 글
- 계열별 채식프로그램 운영: 인문 계열, 이공 계열, 사범 계열
- 채식 프로그램의 세부 매뉴얼 운영: 형식(Form), 내용(Contents), 기술적(Writing) 채식

① **의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 전문가들
 ② **환자** : 환자, 보호자, 가족, 친구, 이웃 등
 ③ **의료기관** : 병원, 의원, 보건소, 약국, 재활센터 등

의사소통의 중요성 : 의사소통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의사소통은 의료 윤리와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 의사소통 장애는 언어 장애, 청각 장애, 문화적 차이, 정보 과부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의사소통의 개선 방안 :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 환자, 의료기관 간의 상호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미래 : 의사소통은 의료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의 의의 : 의사소통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의사소통은 의료 윤리와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중요성 : 의사소통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의사소통은 의료 윤리와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 의사소통 장애는 언어 장애, 청각 장애, 문화적 차이, 정보 과부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의사소통의 개선 방안 :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 환자, 의료기관 간의 상호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미래 : 의사소통은 의료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의 의의 : 의사소통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의사소통은 의료 윤리와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중요하다.

예시1

<본 글의 의의> (주제)

의사소통의 중요성 : 의사소통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의사소통은 의료 윤리와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 의사소통 장애는 언어 장애, 청각 장애, 문화적 차이, 정보 과부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의사소통의 개선 방안 :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 환자, 의료기관 간의 상호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미래 : 의사소통은 의료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의 의의 : 의사소통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의사소통은 의료 윤리와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중요성 : 의사소통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의사소통은 의료 윤리와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 의사소통 장애는 언어 장애, 청각 장애, 문화적 차이, 정보 과부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의사소통의 개선 방안 :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 환자, 의료기관 간의 상호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미래 : 의사소통은 의료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의 의의 : 의사소통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의사소통은 의료 윤리와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중요하다.

예시2



[그림 4] 글쓰기클리닉 침삭 지도

MHC
목원 글쓰기클리닉

1. 신청서

목원 글쓰기클리닉은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1:1 맞춤 지도를 제공하여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문제해결과 적극적인 사고를 함양하여 좋은 교육자가 됩니다.

※ 문의: 02-5080-0000 (평일 10:00~18:00, 주말 10:00~16:00)

이름 : 김지연	예약일시 : 2017 년 4 월 24 일 2 시 00 분
학 명 : KAIST	학과 및 학년 : 전자공학 1학년 2학기
연락처 : 010-95001-7016	이메일 : jee@kaid.ac.kr / naver, com
상담 분야 : 교양분	목표분야 : 발표문, 서평, 연구논문, 보고서, 에세이, 비평문, 자기소개서, 아카이브, 활동기
취업 : <input type="checkbox"/>	취업 및 진학 : <input type="checkbox"/>
수강과목 : 토론과 글쓰기, 말하기와 의사소통, 상용화 글쓰기, 리딩특화기	기타 : _____
보통과 글쓰기 분야 : <input type="checkbox"/> 2년 분반	
참석지도교수 : <input type="checkbox"/> 비어 순 간	

2. 만족도 조사

1. 글쓰기클리닉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상담요구 우선 지원 사회적 약자 홍보 및 광고 방문 기타 (_____)

2. 글쓰기클리닉에서 제공받은 형식 중 어느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이디어 생성(주제확정) 자료 수집 및 순서화 구성 자료 조사 방법
 요약의 방법 및 논점 찾기 문장 및 논증 구성 방법 인용 및 주석 달기
 시론 쓰기 어휘구사(문법 포함) 문장 및 단락 구성
 기타: _____

3. 참석지도교수의 상담 내용 및 태도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4. 글쓰기 상담이 본인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 상담 후 소감을 간략히 기입해 주십시오.

목원은 글쓰기클리닉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은품, 글쓰기클리닉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림 5] 글쓰기클리닉 신청서 및 만족도 조사 설문지(예시)

2) 글쓰기 침삭 지도의 양적 · 질적 변화



글쓰기 클리닉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침삭을 지도하고 있다. 글쓰기클리닉의 상담 분야는 교양 글쓰기, 전공 글쓰기, 취업 및 진학 글

쓰기 등이 있으나 대다수 학생들은 교양 글쓰기(〈토론과 글쓰기〉 1) 토론문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양 글쓰기의 자기소개서가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글쓰기 클리닉에서 제공받은 첨삭 중 도움이 된 부분에서는 개요 작성 및 논리적 구성 34%, 설명 및 논증 구성 방법 18%, 논점 찾기(요약) 10%, 문장 및 단락구성 10%, 서론 쓰기 9%, 어문규정 7%, 아이디어 생성(주제 찾기) 5%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글쓰기 클리닉 이용 학생들은 첨삭지도를 받은 이후 자신들의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상담을 받고 싶어 하였다.

3) 말하기 클리닉 운영 특징

말하기 클리닉의 운영상 특징 역시 매뉴얼에 의한 코칭을 기반으로 한다. 글쓰기 클리닉처럼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기초교양 클리닉에서는 말하기 클리닉의 운영 매뉴얼로 운영되고 있다. 말하기 클리닉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⁴⁾

1. 말하기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2. 말하기 클리닉의 교육과정 매뉴얼을 구축하여, 대학생의 말하기 능력 신장을 꾀할 수 있다.
3. 말하기 클리닉의 체계적인 피드백 프로그램 구축으로 표준화된 말하기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4) 말하기 클리닉 운영 매뉴얼(2016) 참조, 1~3쪽.

4. 말하기 클리닉의 피드백 프로그램 매뉴얼 구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능숙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할 수 있다.
5. 말하기 클리닉의 피드백 프로그램 매뉴얼 구축으로 다양한 말하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6. 말하기 클리닉의 교육과정 매뉴얼 구축으로 교양교육의 목표인 IMAGE+ 창의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말하기 클리닉은 말하기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클리닉 과정의 매뉴얼을 구축하여, 대학생의 말하기 능력 신장을 꾀할 수 있다. 체계적인 피드백 프로그램의 구축으로 표준화된 말하기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피드백 프로그램의 매뉴얼 구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능숙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할 수 있다. 아래의 말하기 클리닉 피드백 평가지를 예로 들 수 있다.



말하기 피드백을 위한 평가지

학생	이름	○○○	방문일	2000년 0월 00일
	학과	○○학과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담당 교수	○○○		개인 신청 여부(O, X)	
평가 요소			비고	
1. 상담 요청 분야	주제 명확성		○	1. 내 주장을 요약해서 말할 때 내용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개요 작성 및 구성			
	내용 일관성			

	<table border="1"> <tr> <td>어휘 구사력</td> <td>○</td> </tr> <tr> <td>토론하는 태도</td> <td>○</td> </tr> <tr> <td>사회자 역할</td> <td></td> </tr> <tr> <td>기 타</td> <td></td> </tr> </table>	어휘 구사력	○	토론하는 태도	○	사회자 역할		기 타		<p>2. 상대방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떨어져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p> <p>3. 토론할 때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서 말을 더듬을 때가 많아요.</p>
어휘 구사력	○									
토론하는 태도	○									
사회자 역할										
기 타										
<p>2. 피드백 내용</p>	<p>1. 내 생각을 주장할 때는 우선 주장하는 내용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무엇이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해보는 습관이 중요. 먼저 내 생각을 연습장에 적어보고, 뒷받침하는 근거를 순서대로 정리. 그리고 이것을 PREP기법에 따라 정리해보기.</p> <p>2. 토론에서 상대방의 질문을 받을 때 연습장에 적어가면서 듣기를 해보기. 그러면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 훨씬 이해가 잘 됨.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고 차분하게 대답. 혹시 답을 잘 모르겠으면 솔직하게 대답해도 괜찮음.</p> <p>3. 말하기를 할 때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것은 배경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음. 상대팀과 적대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은 습관, 말하기불안증을 해소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 모색(물 마시기, 심호흡하기, 몸을 살짝 움직이기 등), 토론내용에 대해 충분히 읽고 공부하면서 준비하기.</p> <p>4. 간투사처럼 '이제'라는 발화가 문장의 시작마다 나타남. 습관적 발화이므로 고치는 것이 좋음.</p> <p>4. 기타 : 청자와 눈맞춤, 목소리 크기 조절,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려고 노력할 것. 얼굴 표정은 밝게. 어깨 펴고 자신 있는 태도로 토론에 임할 것</p>									
<p>3. 수정 사항</p>	<p>항 목</p>		<p>평가 정도</p>							
	<p>언어적 측면</p>	<p>주제 명확성</p>	<p>상</p>	<p>중</p>	<p>하</p>					
		<p>구성 체계성</p>	<p>상</p>	<p>중</p>	<p>하</p>					
		<p>내용 합리성</p>	<p>상</p>	<p>중</p>	<p>하</p>					
		<p>어휘 적절성</p>	<p>상</p>	<p>중</p>	<p>하</p>					
	<p>비언어적 측면</p>	<p>얼굴 표정</p>	<p>상</p>	<p>중</p>	<p>하</p>					
		<p>시선</p>	<p>상</p>	<p>중</p>	<p>하</p>					
		<p>자세(태도)</p>	<p>상</p>	<p>중</p>	<p>하</p>					
		<p>목소리 크기</p>	<p>상</p>	<p>중</p>	<p>하</p>					
		<p>발음</p>	<p>상</p>	<p>중</p>	<p>하</p>					

		발화속도	상	중	하
		간투사	상	중	하
	총합	말하기불안증이 토론에서 자신 없는 모습으로 표출. 배경지식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함.			

[그림 6] 말하기 클리닉 피드백 평가지(예시)

4) 말하기 코칭의 질적 변화

말하기 클리닉 코칭 프로그램은 2017년 참여 인원이 380명에 달한다. 담당교수 5명이 재학생을 위한 말하기 클리닉을 진행한 결과이다. 말하기 클리닉은 말하기 관련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말하기 클리닉에서는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매뉴얼 내용 보강하였다.

토론, 면접, 발표, 대화, 연설, 프레젠테이션 등 말하기 능력 제고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말하기 클리닉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상담 전문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지도위원을 중심으로 말하기 클리닉 운영과 프로그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Ⅲ. 의사소통 공간으로써의 클리닉 방향

1. 침식 지도 강사의 전문화; 튜터제가 아닌 교수제로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기초교양 클리닉은 학부 재학생들의 말하기·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 영역이다. <토론과 글쓰기> 수업과 연계하여 2014년부터 글쓰기 클리닉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른 교양 및 전공 수업, 취업 및 진학과 관련한 글쓰기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과 및 비교과로써 기초교양 글쓰기 클리닉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도 받는다.⁵⁾ 기초교양 클리닉의 내용적, 형식적 활성화를 위한 방법에는 비교과를 활용한 기초교양 클리닉의 침삭 지원이다. 학생들의 말하기·글쓰기 능력을 향상시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기초교양 클리닉의 근본 목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상담 교수도 그에 대한 적절한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⁶⁾ 침삭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침삭 내용 및 형식적인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글쓰기 클리닉>

‘개요 작성 또는 논리적으로 구성에 도움이 되었다’

‘글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말하기 클리닉>

‘단어 끊어 읽기를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5) 이러한 문제는 목원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각 대학들은 ‘글쓰기’ 교과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겪고 있으며, 단기간에 글쓰기 교육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대학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김치현(2013), 『효과적인 글쓰기 클리닉 운영 방안 연구』, 『사고와 표현』 제6집, 한국사고와표현학회, 63쪽. 김현정(2012), 『대학 ‘글쓰기’ 교과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우리어문연구』 43집, 우리어문학회, 179쪽.

6) 이 부분에서 많은 대학들이 대학원생 글쓰기 튜터를 운영하고 있다. 글쓰기 튜터제는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추후 보강하기로 한다.

‘문제점에 대해 몰랐는데 알게 되어 좋았다.’

자신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글쓰기 클리닉〉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유익했다’

‘제 글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글쓰기에 자신감을 얻었다’

‘수업 때 질문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결할 수 있었다’

〈말하기 클리닉〉

‘자신감이 생겨서 좋았다.’

‘말하기에 대한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다.’

상담 교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글쓰기 클리닉〉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 지적하여 주어 고맙다’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었다’

‘수업 전체를 꿰뚫고 계신 것 같아 다음에 또 이용할 것이다’

〈말하기 클리닉〉

‘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

이와 같이 학생과 상담 교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기초교양 클리닉의 활용이다. 기초교양 클리닉의 이용은 단순히 ‘글쓰기 - 첨삭 - 수정 - 완성된 글쓰기’, ‘말하기 - 시연 - 문제점 확인 - 피드백’이 아닌 학생들의 말하기·글쓰기 능력 향상은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학생들의 이성 및 감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글쓰기 수업에서 글쓰기 이론을 통해 글의 이해 및 요약, 글쓰기 지식을 쌓고, 글쓰기 실습을 통해 글쓰기 구성이나 서술 능력을 배울 것이다. 말하기 수업에서는 의사소통 이론을 통해, 말하기(모음-자음) 기초, 표준 발음 등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다인수 학급에서 학생 개인에게 할애되는 시간은 아주 적다. 따라서 교양 수업에서 이론 - 실습, 여기에 토론까지 시행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기초교양 클리닉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업과 연계한 첨삭 지도를 병행함으로써 학생들은 말하기·글쓰기에 대한 만족도 상승, 교수자는 부족한 말하기·글쓰기 시간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2. 첨삭 지도의 매뉴얼화: 개인의 능력 시스템에서 표준 첨삭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첨삭 지도만으로 얻는 효과는 얼마일까? 예를 들어 1회 방문했을 때와 연속 방문하였을 때 첨삭 지도가 기대만큼 높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첨삭 지도 교수의 능력, 상황, 분위기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기·글쓰기 지도는 첨삭이나 말하기 불안, 피드백, 교정 및 교열, 맞춤법, 띄어쓰기 등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 말과 글의 분석, 평가, 수정 사항 등을 전달하려면 상담 교수의 개인 능력이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려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⁷⁾ 만약 이러한 뒷받침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학생들의 기초교양 클리닉 이용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다. 방문 때마다 교수자마다 다른 첨삭을 받는다면 학생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기 마련이기

7) 예를 들어 첨삭료의 상승, 첨삭 지도 전문 교수의 확충 등이 있을 수 있다.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표준 매뉴얼로 기초교양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다. 대면 지도와 표준 매뉴얼로 학생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말하기·글쓰기를 체계적으로 지도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다.

3) 의사소통 공간으로의 변화

기초교양 클리닉을 방문한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

“그렇게 고민했던 내용을 이렇게 빠르고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리닉 방문이 두려웠는데, 막상 오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기초교양 클리닉이 발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편안한 분위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공부하다 힘들면 차 한 잔 마시며 휴식할 수 있는 분위기,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찾아와 글쓰기 상담을 받고, 말하기와 관련한 클리닉을 받으며, 토론 튜터와도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원활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V. 결론

대학생들은 교양과 전공 지식을 극대화하고, 대학에서는 심화된 전공 교육과 다양한 교양 교육으로 그들의 노력에 답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길잡이로 교양 교육의 강화를 외치고 있다.

말하기에는 자기소개, 정보전달, 설득, 면접, PT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대학 교양 수업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진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 토론식 수업의 도입이다. 따라서 토론은 말하기의 종합적 운영이며, 이러한 방식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다만 글쓰기에 할애된 시간이 부족하여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글 작성 - 첨삭 - 수정’의 과정이 어려우며, 이 과정은 담당 교수가 과제물, 상담 시간 등을 활용하여 글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기초교양 클리닉에서는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첨삭지도를 제공하고자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기초교양 클리닉의 내용적, 형식적 활성화를 위한 방법에는 비교과를 활용한 기초교양 클리닉의 첨삭 지원이다. 학생들의 말하기·글쓰기 능력을 향상시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기초교양 클리닉의 근본 목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상담 교수도 그에 대한 적절한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첨삭 지도 강사의 전문화; 튜터제가 아닌 교수제로
- 2) 첨삭 지도의 매뉴얼화; 개인의 능력 시스템에서 표준 첨삭 시스템으로
- 3) 의사소통 공간으로의 변화

편안한 분위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공부하다 힘들면 차 한 잔 마시며 휴식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다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찾아와 글쓰기 상담을 받고, 말하기와 관련한 클리닉을 받으며, 토론 튜터와도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글쓰기 클리닉(2016), 『글쓰기 클리닉 운영 매뉴얼』, 교양교육원.
-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말하기 클리닉(2016), 『말하기 클리닉 운영 매뉴얼』, 교양교육원.
- 교양교육원 글쓰기 클리닉 사업 결과 보고서(2017).
- 교양교육원 누리집(<http://liberalarts.mokwon.ac.kr/sub0701>)
- 김치현(2013), 「효과적인 글쓰기 클리닉 운영 방안 연구」, 『사고와 표현』 제6집 제2호,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57-83쪽.
- 김현정(2012), 「대학 ‘글쓰기’ 교과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우리어문연구』 43집, 우리어문학회, 179쪽.
- 안미애, 김영철, 지현배(2013), 「글쓰기 클리닉의 운영 성과 분석과 표준 글쓰기 클리닉 시스템의 개발 방안」, 『대학작문』 6, 대학작문학회, 159-183쪽.

■ 국문초록

대학생들은 교양과 전공 지식을 극대화하여 사회에 진출하고자 모든 능력을 쏟고 있다. 대학에서는 심화된 전공 교육과 다양한 교양 교육으로 그들의 노력에 답하고 있다. 그 길잡이로 교양 교육의 강화를 외치고 있다.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가 의사소통 능력이기 때문에, 대학 관계자와 학생들은 글쓰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목원대학교에서는 글쓰기·말하기 관련 <토론과 글쓰기>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양 필수로 1년 두 학기에 각 2학점씩 개설되어 있으며, 수강 인원은 30명 내외이다. 이 교육과정은 토론(말하기)과 글쓰기가 통합된 수업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글쓰기 클리닉은 2014년 4월 22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첫 해 294건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매학기 500여 건 이상 글쓰기 첨삭을 진행하고 있다. 글쓰기 클리닉은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대학 생활에서 많은 쓰는 학술적 글쓰기부터 취업을 위한 실용적 글쓰기를 개인지도 받을 수 있다. 말하기 클리닉은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초의사소통역량을 높이기 위해 구축되었다. 2015년 개소하여 2017년까지 매 학기 300여 건의 말하기 코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 재학생을 위한 말하기 코칭 기관은 다른 대학보다 앞서 설치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이 곳에서는 취업 면접, 대인관계 개선, 정보전달 말하기, 설득하는 말하기, 공감을 위한 말하기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말하기 훈련을 할 수 있다.

주제어 ● 교양교육, 교양국어, 글쓰기 클리닉, 말하기 클리닉, 의사소통 공간

■ Abstract

Status and Significance of Liberal Arts Clinic as a Space for Communication

Jo, Yong Lim

College students are trying their best. They want to build their knowledge of liberal arts and majors and advance into society. University faculties are preparing for students' efforts with advanced major education and a variety of liberal arts education. College need for strengthening Liberal arts Education as a guide. That way, students can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college relationships and decision making skills.

The Writing Clinic is a nonsubject program for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writing. You can get a lot of academic writing from college life to practical writing for employment. The Speaking clinic were established to improve students' speaking skills and to increase basic communication skills. Here you can practic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speaking skills such as job interviews,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formational communication, persuasive speaking, and speaking for empathy.



u-러닝 시범학교 사례를 통한 문제 제시 및 분석

원은석(목원대학교)

목차

I. 시작하는 말

II. u-러닝 시범학교

III. u-러닝 시범학교 운영의 분석과 문제 도출

IV. 맺음말

I. 시작하는 말

1) 들어가며

21세기 미래 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 변화가 매우 빠르다. 거대한 컴퓨터를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공유하던 시대에서 개인이 독자적인 컴퓨터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1인 1PC 시대를 거쳐서 개인 한 명을 위해서 수많은 컴퓨터가 사용되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 컴퓨팅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래에는 인간이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은 형태로 하나의 방에 수백 개의 컴퓨터가 자리 잡고 그 컴퓨터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호 접속하여 말 그대로 컴퓨터가 우리의 생활 속에 파고들게 된다. 사람이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컴퓨팅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정현희, 2004).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고 학교 교육 또한 예외는 아니다. 산업화 시대에 학생들은 도서관과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였고,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해 공부했지만,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대에는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내용에 상관없이, 어떤 단말기로도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습공간이 학교와 교실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실제 세계의 공간이 학습공간이 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에서는 센서와 칩 형태로 컴퓨터가 심어진 지능화 된 사물도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학생들이 휴대하는 단말기와 대화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현재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나타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서는 이미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교육인 e-러닝을 넘어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교육, u-러닝 환경 구축과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으며 주요 통신 업체와 단말기 장비 업체, 콘텐츠 업체들이 u-러닝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무선인터넷을 학습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휴대폰이나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Tablet PC와 같이 휴대성을 갖춘 기기가 발달하면서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새로운 교육

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현재 차세대 u-러닝 학습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난 2005년 무선 인터넷 환경과 Tablet PC, PDA를 기본으로 하는 9개의 u-러닝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가 유비쿼터스 기술과 환경의 교육적 활용가능성과 효과성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기술이 학교 현장에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시범학교의 u-러닝의 실태를 분석해보고 u-러닝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사항과 개선 사항을 분석해 보는 것은 앞으로 u-러닝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러닝 시범학교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u-러닝이 나아갈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007년 시범운영 중이었던 u-러닝 연구학교의 실태를 분석하여 앞으로 학교에서 전개될 스마트 러닝의 방향점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u-러닝 연구학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학교 교육에서의 u-러닝 실태를 파악한다. 특히, u-러닝 시범 운영 시행 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학교 현장의 u-러닝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살펴본다.

둘째,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u-러닝 사례를 통해 u-러닝 시범학교의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문제들의 해결 방안 및 스마트 러닝으로의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해본다.

II. u-러닝 시범학교

교육부에서 운영했던 u-러닝 연구학교 9 개교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u-러닝 연구학교는 지난 2005년에 시범 운영되었으며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할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시범학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학교 교육에서의 u-러닝 실태를 파악하고 u-러닝 시범 운영 시행 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u-러닝 시범학교는 다음 <표 1>과 같다.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7개교이다.

No	지역	학교명
1	서울	신학초등학교
2	인천	부원중학교
3	서울	경복고등학교
4	부산	남산고등학교
5	대구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6	광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7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
8	충북	홍덕고등학교
9	울산	농소고등학교

[표 1] 교육부 지정 u-러닝 시범학교

u-러닝은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통신업체, 단말기 장비 업체,

콘텐츠 업체들의 유기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통신 업체, 단말기 장비 업체, 콘텐츠 업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u-러닝 시장 현황을 알아본다.

우리나라 u-러닝 시장의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u-러닝 학교의 개선 사항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볼 수 있다.

1) u-러닝 시범학교 운영

2004년 말 교육부에서는 ‘u-러닝 연구학교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005년 전국 초, 중, 고 9개의 u-러닝 연구학교를 지정하였다. 이들 연구학교는 2005년 3월에서 2008년 2월까지 총 3차년 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5년 11월, 1년간의 u-러닝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어 2006년 하반기 2년차 연구의 중간보고 형태로 그 동안의 u-러닝 실천과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고하였다.

시범학교의 운영보고서(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c; 2006)와 기타 u-러닝 시범학교 실태를 분석한 논문(고은영, 2006; 김혜란, 2006; 양성욱, 2006) 및 연구보고서(권성호, 강경희, 2006; 권성호, 강경희, 서정희, 이상하, 2006)를 분석한 결과, u-러닝 시범학교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2) 시스템 지원

u-러닝 연구학교는 교육부의 정책적 지원과 KT(한국통신), 인

텔, MS(마이크로소프트사) 등 IT기업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인프라에 대한 사후 운영 등 시스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학교급	지원내용	
	단말기	시스템 구축 인프라(공통)
초등학교 (1교)	Tablet PC 50대	· 학교 인터넷망 서비스 속도 증속 및 유·무선 학내망 구축(100Mbps, AP40개) · 교실별 30~40명 동시 접속 가능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 LMS/LCMS 구축 및 단위학교 교수·학습도움센터의 사이버스쿨 기능으로 추가 · 교육용 콘텐츠 제공 사이트 구축 및 단위학교 교수·학습도움센터와 연계
중학교 (1교)	Tablet PC 50대	
인문고 (5교)	PDA 250대 →UMPC 250대	
실업고 (2교)	PDA 100대 →UMPC 100대	

[표 2] u-러닝 시범학교별 지원 내역

3) 시범학교 별 연구주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7개로 구성된 u-러닝 연구학교는 각 학교의 특성과 교육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정하였다.

아래의 주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u-러닝 연구학교들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u-러닝이라는 기술적 환경을 어떻게 하면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 있었다.

지역	학교명	주제
서울	신학초등학교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초등학교 적용 가능성 탐색
인천	부원중학교	Joyful u-school Project: Joyful u-school Project: 학습자와 동행하는 u-러닝 교실 구현
서울	경복고등학교	사교육 대안 체제-3단계 u-러닝 시스템
부산	남산고등학교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u-러닝으로 수능 따라잡기
대구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u-러닝으로 수능 따라잡기
광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PDA-LMS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학습 지원방안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	PDA기기 활용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방안
충북	홍덕고등학교	u-SRM을 통한 맞춤형 교수학습 방안연구
울산	농소고등학교	맞춤형 수능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

[표 3] u-러닝 시범학교별 연구 주제

4) 단말기와 학습콘텐츠

u-러닝 연구학교에 학교에 따라 다른 u-러닝 단말기가 제공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Tablet PC, 고등학교에는 2005년에는 PDA를 지급하였다. PDA 기기의 적용에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2006년 9월 UMPC로 교체되었다. 인터넷 EBS 수능 강의 방

송이나 사이버가정학습, 에듀넷 콘텐츠, 중앙교수학습센터 및 시도 교육청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의 학습 콘텐츠 및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었다.

학교 내 한 학급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대의 u-러닝 단말기를 제공하고 있었다. 학교 교실에서의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u-러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가정에도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학생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연구의 연계성 차원에서 2006년 2차년도 연구반 학급 학생은 2005년 1차년도와 같은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2년째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단 고등학교에서는 PDA 적용 학년이 3학년 학급이었던 학교는 2차 년도에 u-러닝 단말기가 UMPC로 교체되면서 대상 학년을 1, 2학년으로 변경하였다.

III. u-러닝 시범학교 운영의 분석과 문제 도출

1, 2차년도 운영 보고 결과 발표에서 u-러닝 학습의 여러 가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동시에 운영 시 발생했던 문제점 등을 보고하였는데 각 시범학교별로 공통적인 사안들이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학교에서 진정한 u-러닝이 실현되려면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단말기가 모든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급되고, 학교 내 어디서나 학생, 교사, 학부모,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 구축 이 외에도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고 콘텐츠와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 이 필요하다. u-러닝 시범학교의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은 네트워크 측면, 단말기 측면, 콘텐츠 측면, 관리시스템 측면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1) 네트워크 측면

Tablet PC나 PDA, UMPC의 휴대성, 즉시성, 이동성을 고려할 때 무선 인터넷 환경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u-러닝 시범학교는 시범학급을 중심으로 특별교실과 복도, 운동장 일부 등을 연결하는 무선 AP를 설치하여 무선 환경을 구축하였다. 그런데 시범학급 학생 전원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경우 에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구체적인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나열한 것이다.

첫째, 각 학교마다 다수의 학생이 무선 인터넷 접속을 시도할 경우 특정 AP로의 쏠림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둘째, 무선 AP와 Tablet PC, PDA, UMPC간 접속이 불안정하여 학생들이 수업 중 동시에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면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일부만 접속되거나 동영상 재생 시 끊김 현상이 발생하였다. 셋째, 교내의 u-러닝 시범학급과 일부 장소에만 무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교내 다른 장소와 학교 외부에서는 무선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실질적인 u-러닝을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에 있어 인터넷의 안정된 접속과 속도의 제공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지역이 시범 학급을 포함한 일부 제한 지역이어서 교실 밖, 학

교 밖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동학습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내 네트워크의 경우 AP를 추가 설치하여 보다 안정적인 접속과 속도면에서 원활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고, 둘째, 동시 접속에 따른 끊김과 지연이 없는 무선 인터넷 연결을 위해 관련업체의 무선인프라에 대한 점검과 보수가 끊임없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셋째, 교내와 교외, 특히 학습장소로 기능할 수 있는 곳의 무선 네트워크가 원활해야 할 것이다.

2) 단말기 측면

u-러닝 환경에서 단말기는 휴대성이 생명이다. 크기, 무게 면에서 작고 가벼우며 사용하기 편리해야한다. u-러닝 시범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말기에는 Tablet PC, PDA, UMPC 단말기가 있다. 이 단말기들은 사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Tablet PC의 경우 기존 노트북과 같이 PC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비용면에서 비싸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갖고 다니기에는 무게가 너무 무겁고, 크기가 크며 배터리의 용량이 많지 않아 배터리 충전의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PDA의 경우 이동성은 뛰어나지만 학습 화면이 작고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학습기기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PDA는 화면이 너무 작아 기존 웹 사이트들의 글씨나 화면이 일그러지거나, 동영상 강좌 시청 시 불편하다는 문제점들이

부각되었다. 또 메모리의 용량이 크지 않아 다운로드에 한계가 있으며 기기 특성상 멀티미디어 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셋째, UMPC는 PDA와 Tablet PC의 중간 크기로서 PDA의 이동성과 Tablet PC의 기능을 모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기기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고등학생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작아 키보드 입력이 어려우며, 눈이 피로하고 화면이 잘리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말기 사용의 문제점은 크게 비용, 무게, 크기, 기능 및 성능 측면에서 지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용면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저렴하면서도 교육적 기능을 갖춘 단말기가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휴대하기 쉽도록 보다 가볍고 빠른 충전 및 장시간 사용 가능한 단말기가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화면이나 입력장치의 크기는 단말기의 휴대성에 영향을 끼치는데 휴대성을 고려하면서도 불편을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화면의 크기, 키보드와 같은 입력장치의 크기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넷째, Tablet PC, PDA, UMPC와 같은 u-러닝에 적용되고 있는 단말기들은 휴대성을 제외하면 화면해상도, 기능, 메모리 등 PC에 비해 제한된 성능을 가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학습 콘텐츠 측면

u-러닝이 학교현장에 정착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가 풍부해야 한다. 현재 u-러닝 시범학교들은 EBS 수능 강의 방송이나 사이버가정학습, 에듀넷 콘텐츠, 중앙고수학습센터 및 시도 교육청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의 콘텐츠 및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학, 과학과 같은 특정 교과에서 전자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u-러닝 시범학교의 운영 문제점 중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u-러닝에 맞는 적합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한 예로, 지난 2005년 11월 경 PDA를 활용하고 있던 u-러닝 시범학교에 EBS 교육방송 수능 강의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모바일용 교육방송 콘텐츠를 제공해 온 KT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급 계약을 종료했기 때문이었는데 이 당시 시범학교들은 EBS 수능 강의 방송의 대안이 될 만한 PDA용 콘텐츠를 구할 수 없었다.

이는 u-러닝 콘텐츠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콘텐츠 측면에서 지적된 u-러닝 시범학교들이 당면한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PDA 단말기를 활용한 연구학교 교사들은 모바일용으로 교사들이 활용할 만한 콘텐츠가 적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입체 학습이 가능하다는 u-러닝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PDA용 콘텐츠가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Tablet PC 연구학교인 신학초등학교와 인천 부원중학교는 Tablet PC 활용 수업이 이동성 및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 차원에서 긍정적이었으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양한 Tablet PC용 응용 프로그램의 부재가 문제라고 평가했다.

셋째, 모바일 플랫폼 기능이 미비하였다. u-러닝 모바일 단말기들에서는 일반 PC에서 구현되는 다양한 솔루션 중 제한된 솔루션 기능만 제공된다. 예를 들자면, 일반 PC에서는 보이는 화면이 PDA 상에서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며, 특히 사이버스쿨 에 탑재된 학습 자료들은 일반 PC에서의 e-러닝에 적합하여 PDA로 접근하려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다. 따라서 일반 PC에서는 하나의 화면으로 보이는 것이 PDA에서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관련 PDA에 맞도록 전환해야 하는 수고가 따라오는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모바일용 교육 콘텐츠가 절대 부족하였다. u-러닝은 학생들의 1대 1 맞춤형 수준별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강점을 가진다. 따라서 개인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시범학교 단위에서 수준별 맞춤형 모바일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PDA를 이용한 u-러닝 시범학교에서는 EBS의 수능 강의 동영상이나 개별 교사들이 제작한 수준별 콘텐츠로 부분적 수준별 학습을 했는데, 그 때 제공되었던 콘텐츠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수준별 학습을 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하였다.

다섯째,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이나 EBS 수능강의, 에듀넷 사이트 등이 u-러닝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등이 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포함한 콘텐츠로 개발되어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콘텐츠 측면에서 나타난 u-러닝 시범학교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와 단말기 사이의 호환 문제라 볼 수 있었다. 기존 일반 PC를 기반으로 하는 e-러닝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모바일용 단말기로 호

환되지 않는 까닭에 u-러닝 학습 콘텐츠는 더욱더 빈약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u-러닝 도입 단계에 있는 현 상황에서 u-러닝에 적절한,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콘텐츠와 단말기 호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학습 콘텐츠를 각 단말기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야 한다.

둘째, 유무선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모바일 플랫폼 기능에 대한 추가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별 수요 콘텐츠에 대한 개발과 편집 등은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거나 우수 민간업체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콘텐츠 개발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도 모바일용 신규 교육 콘텐츠 개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현재 에듀넷 사이버가정학습은 보다 활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u-러닝을 위한 콘텐츠로서 연구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4) 관리 시스템 측면

효율적인 u-러닝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해주는 학습 관리 시스템(LMS)과 학습 콘텐츠를 관리해주는 학습 콘텐츠 관리 시스템(LCMS)을 갖추어야 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도 살펴보았듯이 LCMS는 학습과정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저장

하고 검색하고 학생의 요청에 맞게 재조직화하여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학습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LMS는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학생의 학습활동을 관리하고 학습 경로를 추적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행 u-러닝 시범학교의 포털사이트와 사이버 스쿨, 사이버 클래스 등은 하나의 통합된 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관리와 다양한 콘텐츠의 공유 및 콘텐츠의 효율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의 u-러닝 시범학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LMS 기능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학부모나 학생이 사이버 환경을 좀 더 쉽게 이용하도록 사이버 스쿨, 사이버 클래스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플랫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번의 로그인으로 사이버스쿨, 사이버 클래스, 포털사이트 등에 접속하도록 함으로써 자료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둘째, 수업 형태별, 과목별, 상황별, 교사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내용별로 적절한 u-러닝 이용, 활동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것을 교사의 필요에 따라, 수업안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LCMS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분석하면 같다.

첫째, u-러닝을 위한 LCMS, LMS기능 보강이 필요하다.

개발된 u-러닝 콘텐츠들의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잘 관리 될

수 있고 현재의 e-러닝 중심의 LMS의 기능을 u-러닝까지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이 필요하고, 개별 학습뿐 아니라 상호작용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LMS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생 개인의 학습상태, 진도에 따라 개인 학습 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1인 LMS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 수업 진행을 위해 용이하게 학생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한다. 교사에게도 학생 개인별로 상담과 평소 생활, 학습 활동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해주고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시스템이 제공되어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교사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환경과 주된 의사소통 방식을 고려하여, 웹 게시판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통보 서비스 등 의사소통의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학교 포털사이트와 사이버스쿨, 사이버 클래스 등의 홈페이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 단위의 단일 관리 시스템 운용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 지원 시스템에서 학생들은 그동안 과목별 매학기별 학습과정에 대한 기록을 학습 포트폴리오 형태로 만들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특히 효과적인 u-러닝을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은 교육전문가와 기술전문가와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기술이 학교 현장에 시범적으로 보급된 지

3년지 지난 시점에서 시범학교의 u-러닝의 실태를 분석해보고 u-러닝 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사항과 개선 사항을 분석해 보는 것은 앞으로 학교 u-러닝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u-러닝 시범학교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u-러닝이 나아갈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u-러닝 연구학교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u-러닝 시범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u-러닝 시범학교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 및 개선사항은 크게 4가지 측면-네트워크 측면, 단말기 측면, 콘텐츠 측면, 관리 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무선 인터넷의 불안정한 접속과 느린 속도가 가장 큰 문제였으며 시범 학급을 포함한 일부 제한 지역에만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점이 문제였다.

단말기 사용의 문제점은 크게 비용, 무게, 크기, 기능 및 성능 측면에서 지적되었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u-러닝에 맞는 적합한 콘텐츠 부족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콘텐츠와 단말기 사이의 호환 문제도 부각되었다.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는 LMS, LCMS의 기능이 미약하며,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LMS, LCMS의 통합적 관리가 요구되었다.

u-러닝 시범학교의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문제들의 해결 방안 및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u-러닝 현황과 국외 u-러닝 선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u-러닝의 현황은 u-러닝과 관련되는 최신 신문, 잡지, 뉴스 보도 자료를 수집하여 통신업체별, 단말기 제조업체별, 콘텐츠 업체별로 분석하였고, 국외의

u-러닝 선진 사례는 문헌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통신업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통신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광대역 통합망인 BcN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지상, 위성 DMB 서비스, 초고속 이동통신 HSDPA와 휴대 인터넷 WiBro의 서비스가 상용화에 이르렀다. 통신업체의 통신 기술의 발달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학습, 즉 u-러닝을 촉진시키고 있었다.

단말기 제조업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단말기 장비 업체들은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휴대인터넷, 고속이동통신, DMB 등과 같은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최신 단말기들을 끊임없이 출시하고 있었다. 특히 PMP가 휴대성과 성능 면에서 u-러닝의 핵심적 단말기로서 부각되고 있었으며,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지만 일반 PC의 기능을 그대로 구현하는 UMPC가 성능면에서 차세대 u-러닝 단말기로 주목 받고 있었다.

콘텐츠 업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u-러닝 단말기에 최적화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다.

국외의 u-러닝 선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콘텐츠 개발 업체, 교육 연구 기관 등 전문 연구 인력들이 중심이 되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사는 이를 학교 현장에서 적용, 실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u-러닝 시범학교가 u-러닝 교육 환경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면 국외 u-러닝 시범학교는 u-러닝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업체별 u-러닝 현황과 국외 u-러닝 선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현행 u-러닝 시범학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점을 제시해 주고, 더불어 앞으로 학교 u-러닝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u-러닝 시범학교가 나

아가야 할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1) 네트워크 측면에서 첫째, 교내에 AP를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인터넷 망 속도를 증속하여 무선 인터넷의 불안정한 접속과 느린 속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시범 학급을 포함한 교내 일부 지역에만 구축되어 있는 현재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점차적으로 교내 전 지역으로 확대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BcN, WiBro, HSDPA, DMB 등의 통신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2) 단말기 측면에서 첫째, PMP, UMPC를 u-러닝 시범학교에 활용해 볼 수 있다. PMP, UMPC는 Tablet PC, PDA보다 무게, 크기, 기능 및 성능 측면에 휴대성과 다양한 기능 및 뛰어난 성능을 가지기 때문에 u-러닝 시범학교의 차세대 휴대 단말기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닌다. 둘째, 단말기의 비싼 비용 문제는 교육부 차원에서 단말기 렌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저렴한 가격에 최신 사양의 단말기를 대여해서 사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참고로, 단말기 대여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 방안임을 알아두자.

(3) 콘텐츠 측면에서 첫째, 콘텐츠와 단말기 간의 호환 문제는 단말기에 맞는 콘텐츠의 변환 솔루션 프로그램 및 단말기 플랫폼 솔루션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 u-러닝 콘텐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에 맞는 전용 u-러닝 콘텐츠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u-러닝 시범학교 교사들에게 콘텐츠의 개발을 위임하기 보다는 민간 콘텐츠 업체나 교육 연구 기관의 전문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u-러닝 단말기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며, u-러닝 시범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개발된 콘텐츠를 적용, 실천해보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4)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첫째, u-러닝 시범학교의 산발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학습 관리 및 콘텐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학습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미니홈피 시스템은 u-러닝 시범학교 관리 시스템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u-러닝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u-러닝의 효과를 밝혀 차세대 미래 학교의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u-러닝 시범학교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다시 적용하여 결과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이 u-러닝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u-러닝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모델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u-러닝 시범학교의 실태를 분석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향후 초·중·고등학교에서 u-러닝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원활한 무선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고 휴대성과 성능면에서 뛰어난 단말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단말기를 통해 구현되는 학습 콘텐츠들이 풍부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 내 무선네트워크 환경에서 휴대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며 원하는 콘텐츠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습 내용과 과정, 결과들은 하나의 통합된 관리 시스템에 의해 기록되고 관리될 것이다. 이러한 u-러닝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미래 학교의 모형이 될 것이다.

이런 u-러닝이 이루어지는 미래 학교 학습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기관 자체의 노력으로만 이루어

질 수 없다. 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 전문 연구진들이 포진한 콘텐츠 업체, 관리시스템 업체와의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들 업체와의 긴밀한 상호 협력 하에 u-러닝 시범학교가 운영되고 이에 대한 질적, 양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발전된 u-러닝 미래 학교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범석, 신성욱, 서정희(2005), u-러닝의 이해. 연구자료 RM 2005-5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고은영(2006),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교육의 실태 분석: 유비쿼터스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권성호, 강경희(2006), u-러닝 연구학교 실천사례 분석. 연구자료 RM 2006-9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권성호, 강경희, 서정희, 이상하(2006), u-러닝 효과성 분석 연구. 연구보고 CR 2006-2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김용성(2005), 교육현장에서의 유비쿼터스 활용. 전북교육, 37. 전라북도 교육청.
- 김혜란(2006), 학습자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행동특성과 u-러닝 시범학교운영 분석에 기반한 유비쿼터스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제언.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충북.
- 양성욱(2006), PDA를 활용하는 u-Learning 연구학교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북.
- 유재택, 강신천, 박형용, 김한성(2006),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에서의 학교망 진화. 연구자료 RM 2006-9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임재현(2005), 교육용 콘텐츠 질 관리 방안 연구. 연구보고 CR 2005-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5a), 미래교육을 위한 u-러닝 교수-학습 모델 개발. 연구보고 CR 2005-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5b), 해외 e-러닝 실태 조사·분석 연구. 연구보고 CR 2005-1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5c), 2005년도 교육부 지정 u-러닝 연구학교 1차년도 운영종합보고서: 제1부 유비쿼터스 기반 연구학교.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국문초록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기술이 학교 현장에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시범학교의 u-러닝의 실태를 분석해보고 u-러닝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사항과 개선 사항을 분석해 보는 것은 앞으로 u-러닝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러닝 시범학교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u-러닝이 나아갈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u-러닝, u-러닝시범학교

■ Abstract

Suggesting Activation of Smart Learning through u-Learning Pilot School Cases

Won, Eunsok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u-learning pilot schools is important to build an enhanced u-learning educational environment. As new technologies based on ubiquitous services began to be spread to education fields, it is necessary to suggest efficient and correct directions for improving u-learning.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status of u-learning pilot schools conducted from 2005 to 2007 and to explor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direction for u-learning in aspects of infrastructure, contents and learning and teaching activities.

Keyword ● u-Learning, u-Learning pilot school

■ 논문투고일 : 2018.04.13. ■ 심사완료일 : 2018.05.10 ■ 게재확정일 : 2018.05.17

논문투고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제1조(학술지 명칭)

- 1)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이라 칭한다.
- 2)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과 융복합, 지식의 대중화,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회수 및 시기)

- 1)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한다.
-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5월 30일, 11월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학술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4월 20일까지, 2호 학술지는 10월 20일까지로 한다.
-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 2) 기존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에 재투고할 수 없다.
 - 7) 부득이하게 게재확정 이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논문투고자격을 향후 5년간 박탈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

고할 수 있다.

- 1) 이메일 접수는 kl@mokwon.ac.kr로 투고한다.
- 2) 온라인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http://liberalarts.mokwon.ac.kr>)의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투고 논문을 직접 업로드한다.
- 3) 모든 투고자는 <지식과 교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1)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제6조 6항 참조) 기준 10매~ 20매(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 기준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장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논문은 한국어·영어·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외국어의 전문가에게 한국어 번역본을 의뢰하여 작성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번역료를 지불한다.
- 4) 원고는 논문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책,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

키워드, 부록(외국어 논문인 경우 국문요약문 등)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참여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 6)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아래와 같다.

(1) 작성 용지 설정

- ① 용지 종류 : A4용지(210×297mm)
- ② 용지 여백 : 위쪽 46, 아래 42.5 왼쪽, 오른쪽 각 50, 머리말, 꼬리말 각 10

(2) 글자 모양

- ① 글꼴 : 나눔명조(논문제목, 소제목, 필자이름 및 소속은 진한 글자로)
- ② 크기 : 논문제목 18, 성명 9.5, 소속 9, 목차 9, 본문 10.5, 각 주번호 9, 각주본문 9, 참고문헌 9.5, 국문초록 10.5, 주제어 9.5, 영문(외국어)초록 10.5
- ③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참조한다.

(3) 문단모양

- ① 본문 : 줄간격 160, 들여쓰기 2
- ② 각주 : 줄간격 130, 들여쓰기 2
- ③ 참고문헌 : 줄간격 130, 왼쪽여백 6, 내어쓰기 6
- ④ 국문 및 영문초록 : 줄간격 130, 왼쪽여백 2, 오른쪽여백 2

(4)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논문제목 : 글자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 ② 성명 : 글자크기 9.5, 진하게, 가운데 정렬(논문제목과 이름 사이 한줄 땀)
- ③ 소속 : 글자크기 9, 진하게, 가운데 정렬, 괄호 안에 소속을 명기
- ④ 소제목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왼쪽, 진하게
- ⑤ 본문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양쪽정렬

(5)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 : I. II. III.....(2줄 띄고, 14p, 중고딕, 가운데, 진하게)
- 2단계 : 1. 2. 3.....(1줄 띄고, 1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 1) 2) 3).....(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 (1) (2) (3).....(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 5단계 : ① ② ③.....(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6)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 >를, 문학작품인 경우는 『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 ② 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7) 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 ①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②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 『교양연구』 24집, 2009, 21쪽.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2005, 81쪽.

-영문(외국어)인 경우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기한다.

Jack Wood,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HumanArts, 1982), p.23.

Kimberly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Education, vol. 30, no. 3 (1989), pp.51-65.

Michael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Liberal Arts and Societ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pp.106-121.

- 신문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예) 홍길동, “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2011.05.21.

-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 <지식과 교양>, www.mokwon.or.kr, 2011.05.21.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로 표기한다.

예) Ibid., pp.20-21.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한다. 예) Michael, op. cit., p.21.

④ 참고문헌 작성요령: 글자크기 9.5 (단, 제목은 10, 진하게)

-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된 쪽수 및 페이지 수는 명기하지 않고 생략한다.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2005.

Bergstrom, Johns. ed. Human Arts: Culture and Society, Arts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Donald, Stephen.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 Norton, 1977.

Silverman, Kaja. The Subject of Semio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Walker, Janet. Couching resistance : women, art, and psychoanalytic psychiat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⑤ 국문·영문(외국어)초록 및 국문요약문 작성요령: 글자크기 10.5(단, 제목은 진하게)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영문(외국어)초록은 논문의 마지막에 본문과 다른 영문(외국어)으로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영문(외국어)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Keyword)를 반드시 첨부한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본문의 언어 종류

에 관계없이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이때의 영문 초록은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최소 1,000자 이상, A4 2매 내외의 분량의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9조(논문 수정)

-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 후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3) 논문제목 및 내용 수정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가 진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만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일반 논문: 전임 10만원 / 비전임 5만원
 - 연구비 수혜논문: 전임 30만원 / 비전임 20만원
- ※ 논문편집양식(제7조 6항 참조)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참조).
-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 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저작권)

- 1) 게재된 모든 논문은 <지식과 교양>홈페이지(kl.mokwon.ac.kr)를 통한 원문 공개 등 기타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 연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단 12조 1)항을 제외한 목적으로 논문을 사용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3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14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 1) 본 <지식과 교양>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및 판정)

-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2인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과 심사서 양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심사위원에게 발송한다.
-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6)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수정 후 재심',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 7)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정 요구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8) 심사위원 2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지식과 교양>에 게재한다.
-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이의 심사)

-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 전체가 검토하도록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식과 교양〉이 소유한다.
-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7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8년 03월 01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식과 교양〉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지식과 교양〉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 1)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2)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 1)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2)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이 정한 표절의 기준을 따른다.
- 3)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미지 자료 인용 역시 문서의 재인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4)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지식과 교양>에 수록될 수 있다. 단, 이때 그 작성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 5)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4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6)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
- 7)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8)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지식과 교양>을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9)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

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혹은 학술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

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 3)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교양>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5인 내외의 인사로 구성한다.

제7조(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위반행위의 조사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기피, 회피)

-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 4 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지식과 교양>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향후 10년 이상 <지식과 교양> 투고 금지
 -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지식과 교양> 및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2) 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학술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21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18.3.1.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와 편집
- 2)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 3) 각종 학술자료 수집 및 정리
- 4) 기타 학회의 편집 관련 업무

제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4)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사안)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1) 학회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2) 투고 논문 심사결과의 검토와 판정

◇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 현승훈

◇ 편집위원장 : 서정일

◇ 편집 위원 :

구진희(목원대), 김요한(영남대), 김혜정(경인교대), 문성호(중앙대), 서
유석(경상대), 송석량(목원대), 유경아(목원대), 정옥희(목원대), 최혜진
(목원대), 홍태한(전북대)

지식과 교양 *Knowledge & Liberal Arts*

2018년 5월 30일 / 30 May 2018

창간호(통권 제1호) / Vol.1

발행인 현승훈
발행처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발행일 2018년 5월 30일

(우편번호 35349)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 1층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042-829-8198
kl@mokwon.ac.kr
<http://kl.mokwon.ac.kr>

인쇄처 씨앤피
042-824-0701